

## 金元四大家의 學說이 四象體質醫學에 미친 影響에 對한 研究

慶熙大學校 洪元植·裴오星

### A study on the influence of Four great doctors' theory in Geum Won era for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Bae Oh - Sung, Hong-Won Sik

The theory of 4 great doctors in Geum Won era has been considered as a most scientific medicine after SangHanRon of Jang, Jung Kyung. And it influence for all the later medical theory and practice.

I have found a common points between their Fire and Fever pathology and constitutional pathology of Li, Je Ma.

The results obtained are as follows.

1. On the Viewpoint of medical history, there is common points in the fact that the start of Geum Won 4 great doctor' principle had been driven from awakening of the abuse of warm and hot herbs based on Hwa Je Guk Bang in the last stage of Song dynasty, and that the appearance of Sa Sang medicine was from the scientific reflection against the currency of the animation by warm herbs which was popular in the Jo Sun dynasty.

2. The theory of Fire and Fever pathology of 4 great doctors has been fixed in the principle of Cold and Fever pathology of viscera and bowel in the Sa Sang medicine.

3. The pathological meaning of 'internal fire' in the conculusion by 4 great doctors has got scientific fruit by Sa Sang medicine in its theory of four constitutional psychology and the formation of four visceras.

4. It is considered that the study of DongUiSuSeBoWon is needed for the relation with former medical theories.

#### I. 緒論

醫學은 人類文化의 精神的 所産으로서 人類와 더불어 原始的 方法으로 시작된 것이 며 人智가 發達하면서 學問의으로 體系化 되었고 文明의 發展에 따라 그 方法論이 多樣化되고 深化되어 왔다.

東洋醫學은 《內經》과 《難經》을 中心으로 주로 人體의 經絡理論과 針灸등을 研究한 醫經七家와 《神農本草經》 및 仲景의 《傷寒論》을 中心으로 本草와 方劑를 研究한 醫方十一家의 두 系統으로 나누어 發展되어 왔다.<sup>1)</sup>

그후 南北朝(AD 420~589)에서 唐宋代(AD 619~1276)에 이르는 時代에는 臨床醫學의 發展은 있었으나 微微하였다.<sup>2)</sup>

1) 北京中醫學院, 中國各家學說講義, 香港醫學衛生出版社, 1968, p. 2.

그것은 《傷寒論》에서 臨床原理의 基礎的 理論이 形成된 以來 이를 經典視하여 그 대로 踏襲하려는 傾向이 지배적이었고, 宋代의 醫學研究理論은 주로 《傷寒論》과 運氣學說의 研究로 나타나나 基本的인 醫學의 論은 두드러진 것이 없었다.

《傷寒論》에 대하여서도 비록 具體的인 問題를 提起하였고 새로운 觀點과 主張도 있었으나 基本理論 自體에는 顯著한 發展이 없었다.<sup>3)</sup>

金元四大家는 張仲景 以後 平談無奇하였던 東洋醫學의 學風을 一變시켜 醫學의 發展을 促進시키는 契機를 마련하였으며, 後世 明清代 醫家들에게 큰 影響을 주어 各各의 學派를 形成케 하는데 重要的 役割을 하게 되었다.

四大家의 獨創的인 醫學理論의 核心은 火熱病理로서 이는 당시 社會에 橫行하던 《和劑局方》의 燥熱 溫補之劑의 濫用에 대한 弊端과 疾病의 病理에 대한 根本的 研究分析이 없이 症狀에 맞추어 公式的으로 藥劑를 投與하는 風潮에 대한 一大 警鐘이었다.

著者は 四象體質醫學을 研究해 오면서 《東醫壽世保元》이 李濟馬 先生에 의해 世上에 나온지 거의 1世紀가 되는 지금까지 이에 대한 研究는 아직 原書의 테두리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을 痛感하고 있다.

四象體質醫學의 登場時期는 《東醫寶鑑》 以來 大衆化된 《方藥合編》을 中心으로 溫補氣血之劑의 投與가 主宗을 이루는 19世紀末로서 醫學의 原理的 應用보다는 臨床治療에 치우쳤던 時期임을 看過할 수 없다.

이는 宋 以後에 만연한 《和劑局方》의 燥熱溫補劑의 濫用에 反對하여 火熱病論을 創始하여 寒涼藥의 重要性을 제시한 四大家의 出現과 醫史學의 一致性을 發見할 수 있다.

四象體質醫學 研究의 難易性이 體質病理의 糾明에 있음을 절감해 오던 中 金元四大家의 病理學說에서 그 실마리를 발견하여 本 研究를 시작하는 바이다.

## II. 本論

### 1. 四象體質醫學의 學術的 特徵

#### 1) 體質 辨證의 特徵과 意義

東武의 四象體質理論은 《內經·通天》의 五態人論과 《內經·陰陽二十五人篇》의 二十五人論 그리고 張介賓의 陽臟陰臟之人論 等の 類型體質論이 陰陽과 五行을 方法論으로 한 다분히 理論的인대 反하여, 臨床과 治病에 窮極的 目的을 둔 것이다. 그는 새로운 學問을 定立하기 위하여 歷代 醫書를 두루 涉獵하고 《東醫壽世保元·醫源論》에 밝히기를 “書에 이르기를 ‘萬若 藥을 먹고 效能이 눈에 眩氣를 일으킬 정도로 아질하지 아니하면 그 病이 낫지 않는다’고 하였다. 殷(商)나라 高宗때에 이미 아질한 藥의 效能을 認定한 바 있어 高宗이 이를 感歎하였은즉 醫學經驗의 由來가 오래되어 이미 神農, 黃帝때로 부터 전해 왔음을 가히 믿을 수 있다. 그러나 《本草》, 《素問》이 神農, 黃帝의 論에서 나왔다면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니, 神農 黃帝때에는 尙당 文字가 없었을 것이요, 後世에 이르러 漸次的으로 發展하여 왔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周가 衰하고 秦漢時代에는 扁鵲이 有名하였고 그 後에는 張仲景이 醫術을 갖추어 《傷寒論》을 著述하여 一家를 이루었으니 醫學의 길이 비로소 興하게 된 것이다. 張仲景 以後에는 南北朝 隋 唐時代의 여러 醫師들이 繼承하였고 宋나라 때에는 朱肱이 모두 醫術을 갖추어 《活人書》를 著述하므로 醫道가 中興하게 된 것이다. 朱肱 以後

2) 蔡陸仙, 中國醫藥匯海, 서울, 成輔社, 1978, p. 75.

3) 洪元植,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 1984, p. 192.

에는 元의 李杲, 王好古, 朱震亨, 危亦林 같은 名醫들이 계승하였고, 明나라 때에 와서는 李梴, 龔信등이 모든 醫術을 갖추었으며, 許浚이 經驗한 바를 저술하여 《東醫寶鑑》을 내니 비로소 醫學의 길이 크게 復興하게 된 것이다.

“대체로 神農, 黃帝 이후 秦漢 以前까지의 病證과 藥理는 張仲景이 전수하였고 魏, 晉 以後 隋 唐 以前까지의 病證과 藥理는 朱肱이 傳授하였으며 宋元 以後 明 以前까지의 病證과 藥理는 李梴, 龔信, 許浚이 전수하였다.

만일 醫家의 功勞와 業績을 따진다면 첫째로 張仲景, 朱肱, 許浚을 들 수 있고, 다음으로는 李梴, 龔信의 차례가 될 것이다”<sup>4)</sup>라 하였다.

그리고 張仲景 이래 歷代 醫家들의 學說중에 자신이 發見한 四象體質의 病理과 藥理에 대해 다음과 같이 敘述하고 있다. “少陰人의 病證藥理는 張仲景이 거의 소상하게 밝힌 것을 宋, 元, 明의 여러 醫師들이 完全할 정도로 자세하게 밝혔고 少陽人의 病證藥理는 張仲景이 절반 정도 자세히 밝힌 것을 宋, 元, 明의 여러 醫師들이 거의 소상하게 發明하였고, 太陰人의 病證藥理는 張仲景이 대략 그림자만 비친 것을 宋, 元, 明의 여러 醫師들이 절반쯤 소상하게 발명하였고, 太陽人의 病證藥理는 朱震亨이 약간 그림자만 비쳤으며 또한 本草에도 약간의 藥理만 나와 있다”<sup>5)</sup>.

四象人의 臟腑生理의 발견이 예전 사람들의 醫書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아울러 말하기를 “體質의 名稱인 太陰人, 少陽人, 太陽人, 少陰人과 張仲景이 論한바 太陽病, 少陽病, 陽明病, 太陰病, 少陰病, 厥陰病 등 六經病證으로 論한 것을 混同하지 말라”<sup>6)</sup>라 하여 둘의 區別을 明確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이제까지 기존의 病理 學說을 要約하여 간결하게 비판하였는 바 “대개 옛날 醫師들은 사람의 마음에서 생기는 憂, 惡, 所欲, 喜, 怒, 哀, 樂과 같은 것이 偏着되어 病이 되는 줄을 모르고, 단지 飲食物로 因하여 脾胃가 傷하거나 또는 風, 寒, 暑, 濕의 觸傷으로 病이 생기는 줄로만 알았다. 그러므로 病을 論하고 藥을 論한 것을 보면 대개 少陰人의 脾胃가 弱한데 대한 약방을 만들어 냈고, 간혹 少陽人의 胃熱證 약이 있으며 太陰人, 太陽人의 病證에 대해서는 完全히 몰랐던 것이다.”<sup>7)</sup>라 하였다.

## 2. 體質病理의 要諦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太陰人, 少陽人, 少陰人, 太陽人의 病理를 論함에 있어 各各

少陰人 腎受熱 表熱病論

少陰人 胃受寒 裏寒病論,

少陽人 脾受寒 表寒病論

少陽人 胃受熱 裏熱病論,

太陰人 胃脘受寒 表寒病論

太陰人 肝受熱 裏熱病論,

太陽人 外感腰脊病論

太陽人 內觸小腸病論, 等の 原理로 體質別病理를 전개하였다.

즉 內經以來 病理와 診療上 가장 重要視되어 온 八綱辨證 中에서 寒熱이 中心的 要素임을 強調하였다. 少陽人 脾受寒 表寒病論에서도 “옛날 醫師의 말에 ‘찬머리 아픈 일이 없고, 더운 배 아픈 일이 없다’고 하였으나 이 말은 옳지 않은 줄 안다. 왜냐 하면 少陰人은 본래 冷이 勝한 자인즉 頭痛도 熱로 온 것이 아니라 冷으로 온 것이

4) 洪淳用 李乙浩, 四象醫學原論 醫原論, 서울, 杏林出版社, 1973, p. 95.

5) 洪淳用 李乙浩, 四象醫學原論 醫原論, 서울, 杏林出版社, 1973, p. 101.

6) 上揭書 p. 106.

7) 李乙浩 洪淳用, 四象醫學原論 醫原論, 서울, 杏林出版社, 1973, p. 111.

요, 少陽人은 본래 熱이 勝한자인즉 腹痛도 冷으로 온 것이 아니라 熱로 온 것이다.”<sup>8)</sup>라고 하였다.

또한 “少陽人의 病은 火熱로 되는 까닭에 變動이 심히 빠르므로 비록 初症이라도 가벼이 보아서 안되는 것이다”<sup>9)</sup>라고 少陽人의 體質病理가 다름아닌 火熱病理임을 明瞭하게 밝혔다.

太陰人 胃脘受寒 表寒病理에서 “太陰人 한 사람이 목안이 마르고 面色이 靑白하며 몸이 차고 泄瀉를 하는 症勢가 있었다. 목안이 乾燥한 것은 肝에 熱이 있기 때문이요, 面色이 蒼白하고 몸이 차며 泄瀉를 하는 것은 胃脘이 차기 때문이다”<sup>10)</sup>라고 하여 太陰人에게도 熱과 寒이 基本病理의 體가 됨을 밝히고, 이에 따라 熱多寒少湯과 寒多熱少湯과 같은 名方을 創方하였다.

그리고 누차 強調한 七情에 대하여도 太陰人 肝受熱 裏熱病論에서 “이 病의 原因은 사치와 향락으로 慾火가 밖으로 달려서 肝熱이 크게 盛하고 肺가 燥하여 크게 이를 말려버린 까닭이다”<sup>11)</sup>라고 하여 七情이 化火하여 肝, 肺에 熱을 發生시킨다고 하였다.

### 3. 金元四大家의 醫學理論

#### 1) 劉完素의 學說

劉完素는 宋代 性理學의 影響을 받아 주로 《內經》과 《傷寒論》을 研究하여 醫學思想을 定立하였으니 “故法之與術 悉出內經之玄機”(法과 術은 모두 《內經》의 玄機에서 나왔다.)<sup>12)</sup>라 하였고 “仲景者亞聖也 雖仲景之書 未備聖人之教 亦機於聖人...”(仲景은 聖인에 버금가니 비록 仲景의 冊이 聖人の 가르침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또한 聖인에 가깝다.)<sup>13)</sup>이라 하였다. 특히 그의 《內經》에 관한 研究는 當時까지 내려오는 方式을 탈피하여 《內經》研究의 轉換點을 이루어 놓았다.<sup>14)</sup>

그는 《內經》과 《傷寒論》의 理論을 바탕으로 《素問玄機原病式》, 《素問宣明論》, 《傷寒標本》 등을 著述하였으며 이들 著書에 나타난 그의 주된 醫學思想은 五運六氣의 應用과 亢割承制論, 主火論등으로 特徵지워질 수 있다.<sup>15)</sup>

《素問玄機原病式》에서 疾病을 六機로 分類하였으며 그 중 火와 熱에 의해 生하는 것이 全體 81種中 약 2/3인 56種으로 대부분 疾病이 火, 熱에 의하여 發生한다고 主張하였다. 그리고 그는 疾病이 本氣에 의해서만 發生하는 것이 아니라 六氣가 서로 다른 氣와 相干하거나 兼化하여 發生한다고 보아 “然臟腑經絡 不必本氣與衰而能爲其病 六氣互相干而病也.”(그러나 장부경락은 반드시 본기가 쇠하는 것에 더불어 능히 그 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기가 서로 상간하여 병이 되기도 한다.)<sup>16)</sup>라 하였고 “故陰陽相搏 剛柔相摩 五行相錯 六氣相變而爲病”(故로 陰陽이 서로 얽히고 剛柔가 서로 갈고 五行이 서로 어긋나고 六氣가 서로 變하여 病이 된다.)<sup>17)</sup>이라 하였다.

8) 洪淳用 李乙浩, 四象醫學原論 醫原論, 서울, 杏林出版社, 1973, p. 259.

9) 上揭書, p. 269.

10) 上揭書, p. 322.

11) 洪淳用 李乙浩, 四象醫學原論 醫原論, 서울, 杏林出版社, 1973, p. 322.

12) 吳勉學校, 劉河間 三六書 (影印), 서울, 成輔社, 1976, p. 11.

13) 上揭書, p. 252.

14) 宋哲鎬 洪元植 金光湖, 金元四大家에 關한 研究, 慶熙韓醫大 論文集, Vol. 9, p. 55.

15) 宋哲鎬 洪元植 金光湖, 金元四大家에 關한 研究, 慶熙韓醫大 論文集, Vol. 9, p. 55.

16) 吳勉學校, 劉河間三六書, P. 281.

이러한 觀點에서 그는 風寒燥濕을 發生케 하는 原因이 되기도 하며 또는 다른 氣와 兼化하여 疾病을 일으키므로 大部分 疾病이 火熱에 依하여 發生한다고 하였다. 이를 좀더 仔細히 살펴보면

① 風과 火와의 關係 : 劉完素는 風은 木에 속하고 木이 火를 生한다 하여 “火本不燔 遇風冽乃焰”(火는 本來 타지(사르지) 않는데 風과 寒을 만나면 이에 타버린다.)<sup>18)</sup>이라 하였고 이와는 반대로 “風本生於熱 以熱爲本 以風以標 凡言熱者風也.”(風은 本來 熱에서 生하여 熱로써 本을 삼고 風으로써 標를 삼으니 무릇 熱이라 하는 것은 風이다.)<sup>19)</sup> 또한 “凡人風病 多因熱甚而風”(무릇 사람의 風病은 많이 熱甚으로 因하여 風이 된 것이다.)<sup>20)</sup>이라 하였으며 “故陽熱易爲鬱結而熱甚則生風也.”(故로 陽熱은 쉽게 鬱結하며 熱이 甚한즉 風이 된다.)<sup>21)</sup>라고 하여 風이 熱의 原因이 되고 或은 熱이 風을 發生시키기도 한다 하였다. 그리고 諸風掉眩의 病理에서 “所謂風甚而頭目眩暈者 由風 木旺 必是金衰不能制木 而木復生火 風火皆屬陽 多爲兼化 陽主乎動 兩動相搏則爲之旋轉”(이른바 風이 甚하여 머리와 눈이 어지럽고 캄캄한 것은 風으로 말미암고 木이 旺盛하면 반드시 金이 衰하여 能히 木을 制壓하지 못하여 木이 火를 生하니, 風과 火는 모두 陽에 屬하고 많이 兼化한다. 陽은 動을 주로 하고 兩動이 서로 얽힌즉 轉旋한다.)<sup>22)</sup>이라 하여 風과 火가 서로 兼化하여 病이 發生하기도 한다 하였다.

② 濕과의 關係 : 그는 火와 濕과의 關係에서 “積濕成熱”(濕이 쌓이면 熱이 된다.)<sup>23)</sup>이라 하고 “濕爲土氣火熱能生土濕”(濕은 土氣이니 火熱이 能히 土濕을 生한다.)<sup>24)</sup>이라 하였으며, 濕病의 病理를 “濕病本不自生 因生於火熱沸鬱 水液不能宣通則停滯而生水濕也.”(濕病은 本來 스스로 生하지 못하고 火熱이 끓어 울결하여 生하니 水液이 能히 宣通하지 못한즉 停하고 滯하여 水濕을 生한다.)<sup>25)</sup>라 하였고 “凡濕病者 多自熱生而熱氣尙多”(무릇 濕病은 많이 熱로부터 生하여 熱氣가 오히려 많다.)<sup>26)</sup>라 하였다. 그리고 “濕熱相搏則怫痞膈小便不利而水腫也”(濕과 熱이 서로 얽힌즉 膈을 막아 小便이 疏通되지 못하여 水腫이 생긴다.)<sup>27)</sup>라 하여 濕과 熱이 兼化 하여서도 病이 發生한다 하였다.

③ 燥와의 關係 : 燥病은 中寒吐瀉하여 亡液而成燥하거나 寒濕相鬱하고 營衛不能開發하여 發하나 大部分 “風能勝濕 熱能液”(風은 能히 濕을 이기고 熱은 能히 津液을 消耗시킨다.)<sup>28)</sup>하여 생긴다 하였다.

또한 “金燥雖屬秋陰而其成異於寒濕而反同於風熱火也 又加大便乾濕乃大腸受熱 化成燥澁”(金燥는 비록 陰에 屬하되 그 이름이 寒濕에 다르고 도리어 風熱火에 같다. 大便의 濕이 마른 것은 이에 大腸이 熱을 받은 것이니 燥澁을 이룬다.)<sup>29)</sup>이라 하여 大腸이

- 17) 上揭書, p. 281.
- 18) 吳勉學校, 劉河間 三六書, p. 21.
- 19) 上揭書, p. 37.
- 20) 上揭書, p. 281.
- 21) 上揭書, p. 282.
- 22) 吳勉學校, 劉河間 三六書, p. 257.
- 23) 上揭書, p. 285.
- 24) 上揭書, p. 193.
- 25) 上揭書, p. 193.
- 26) 上揭書, p. 193.
- 27) 上揭書, p. 266.
- 28) 吳勉學校, 劉河間 三六書, p. 207.

熱을 받아 燥하게 된 것이라 하였으며 “俗方治麻病 多用烏附者 風熱勝濕而燥 因而病麻 即宜以退風散熱 活血養液 潤燥通氣之涼藥調之”(俗方に 麻病을 治療하는데 川烏와 附子를 많이 使用하였다. 風熱이 濕을 이겨 燥가 되어 因하여 麻病이 된 것은 마땅히 退風散熱하고 活血養液하며 潤燥通氣하는 涼藥으로 調節한다.)<sup>30)</sup>이라 하여 燥澁治療에 依해 涼藥으로 調之하고 烏附之藥의 服用을 삼가라 하였다.

④ 寒과의 關係 : 陰盛陽衰하여 發生하는 中寒證을 除外하고 비록 寒證이라도 冷熱이 相併하여 陽氣가 沸鬱하였을 때에는 熱證으로 治療하라 하여 “冷熱相併而反陽氣 沸鬱不能宜散 沸鬱內作 以成熱證者 不可亦言爲冷當以成證辨之”(冷과 熱이 서로 아울러서 도리어 陽氣가 能히 宣布되어 흩어지지 못하고 鬱結하여 안으로 熱證을 이루는 것은 또한 마땅히 冷이라 말하지 못할 것이니 이루어진 證으로 分別하는 것이 마땅하다.)<sup>31)</sup>라 하였다.

이와같이 火熱을 除外한 風寒燥濕等 諸氣도 病理過程中 大部分 火熱로 變하거나 或은 火熱과 兼化하여 發生하는 『六氣諸從火化』의 現象이 일어나 火熱이 대부분 疾病의 發生原因이 된다고 하였고 治療에 있어서도 寒冷藥을 善用하였으므로 後世 사람들은 그를 主火論者 혹은 寒冷派라 불렀다.<sup>32)</sup>

## 2) 張從正의 學說

張從正은 《內經》, 《難經》, 《傷寒論》 등을 많이 研究하였고 特히 劉完素의 理論을 私淑하여 六氣論과 主火論에 크게 影響을 받아 寒冷藥을 善用하였다. 그의 醫學思想은 六門三法으로 特徵지워지는데 劉完素의 六氣論에 影響을 받아 疾病을 六氣 則 風寒暑濕燥火로 分類하였으며 그 外의 나머지 疾病은 內傷, 外傷, 內積, 外積 등으로 分類하였고<sup>33)</sup> 治療에 있어서는 汗吐下三法을 多用하였다. 汗吐下三法은 이미 《內經》이나 《傷寒論》에서 言及되었으나 그는 이것의 內容을 豊富하게 하고 應用範圍를 더욱 擴大시켜 使用하였다.

### (1) 攻下論과 汗吐下三法

그는 疾病이 內因이건 外因에 依한 것이든 그것이 發生하는 根本的인 原因을 모두 邪氣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疾病의 모든 原因이 邪氣에 있는 以上 마땅히 攻法을 써서 邪氣를 몰아내어 그것이 停留되게 하지 말아야 하며 만약 元氣를 튼튼히 하려고 補劑를 使用한다면 眞氣는 이로우를 받기는 커녕 邪氣가 더욱 漫延되어 制止할 수 없게 된다 하였다. 다만 脈脫下虛無邪無積之人만이 補法을 使用할 수 있고 一切 有積有邪한 病人에게 補法을 使用하면 絶對的인 失手를 犯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治療에 먼저 攻邪를 하여 邪氣를 除去 하면 元氣가 저절로 恢復되며 攻邪의 方法에는 汗吐下三法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風寒의 邪氣에 依하여 發生한 疾病이 皮膚나 經絡에 있으며 汗法을 使用하고 風痰宿食으로 胸膈이나 上腕에 있을 境遇에는 吐法을 使用하여 寒濕緩冷이나 熱이 侵犯하여 아래에 있는 境遇에는 下法을 使用한다.<sup>34)</sup>

그는 이러한 三法을 더욱 擴大하여 “引涎, 瀉涎, 噎氣, 追泪, 凡上行者 皆吐法也 灸,

29) 上揭書, p. 207.

30) 上揭書, p. 286.

31) 吳勉學, 劉河間三六書, p. 173.

32) 宋哲鎬 洪元植 金光湖, 金元四大家에 關한 研究, 慶熙韓醫大論文集, Vol. 9, 1986, p. 55.

33) 北京中醫學院, 中醫各家學說講義, p. 89.

34) 張子和, 儒門事親 卷二, 臺北, 旋風出版社, p. 9.

蒸, 熏, 溲, 洗, 熨, 烙, 針刺, 砭射, 導引, 按摩. 凡解表者, 皆汗法也 催生 下乳, 磨積逐水, 破經泄氣 凡下行者 皆下法”<sup>35)</sup>이라 하여 實際 治療上에 있어서도 80~90%를 三法을 使用하여 治療하였다 한다.<sup>36)</sup>

그리고 그는 汗法의 一種으로 出血療法을 善用하였다. 《內經》에 “血實宜決之”(血이 實한 것은 決通함이 마땅하다.)<sup>37)</sup>라 하여 血이 비록 全身에 營養을 供給하나 血熱하여 壅滯하면 오히려 病이 되니 이럴 때 出血을 시키면 邪熱이 清하게 되고 血行이 自然이 順調롭게 된다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出血者 乃所以養血”(血을 내는 것은 이에 養血하는 것이다.)<sup>38)</sup>, “出血與發汗名雖異而實同”(血을 내는 것과 땀을 내는 것은 비록 이름은 틀리나 實質은 같은 것이다.)<sup>39)</sup>이라 하였다. 그리고 그는 出血은 發汗보다 效果가 더욱 迅速하여 發汗으로 治療하지 못하는 疾病을 治療할 수 있다 하였다. 예를 들어 《喉舌緩急疔藥不同解》에서 “大抵 治喉痺 用針出血 最爲上策 內經 火鬱發之 發謂發汗 自咽喉中豈能發汗故出血者 乃發汗之一端也”(大抵 喉痺를 治療할 때에 針을 使用하는 것이 가장 좋은 方法이다. 《內經》에 火鬱發之라 하였는데 發은 發汗을 意味한다, 咽喉中으로부터 어찌 능히 發汗하리오? 故로 血을 出하는 것이 이에 發汗의 一端이다.)<sup>40)</sup>라 하였으며 주로 上部에 血行이 壅滯되어 熱에 속하는 疾患 즉 目暴赤腫 咽喉痺 重舌木舌 頭風 頭痛, 腰脊強 年少發早白落 或白屑等 症이나 肝經血熱이 壅滯되어 생긴 陰囊燥痒症등에 出血療法을 使用한다 하였다.

#### (2) 慎用補法

張從正은 治療에 있어서 汗吐下 三法을 주로 使用하고 補法의 使用을 매우 慎重히 하였다. 무릇 疾病에는 虛證을 補하는 데에도 氣의 偏勝을 重視하여 그 偏勝함을 制하면 不勝者가 스스로 平하게 되니 그 有餘함을 瀉하는 것이 그 不足함을 補하는 것이라 하여 “吐中有自汗 下中有自補”(吐시키는 中에 저절로 땀내는 것이 있고 下시키는 中에 저절로 補하는 것이 있다.)<sup>41)</sup>라 하였다.

그는 補法을 완전히 排除하지는 않았지만 補法을 使用함에도 먼저 瀉法을 施行한 후에 使用하였고 혹은 攻補를 兼施하여 “予雖用補 未嘗不以攻藥居其先 何也 蓋邪未去而不可言補補之適足而資寇”(내가 비록 補를 함에 일찌기 치는 藥으로써 먼저하지 않음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 대개 邪氣가 除去되지 않으면 補를 말할 수 없으니 補의 條件이 充足되어야 補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42)</sup>이라 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補法을 使用치 않는 것은 그러한 證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여 “豈有虛者 不可補 實者不可瀉之理哉”(어찌 虛한자를 補하고 實한자를 瀉하지 않는 理致가 있으리오)<sup>43)</sup>, “俗工往往聚難 以予好 用寒涼 然予豈不用溫補 但 不遇可用之 證也.”(俗工이 往往 내가 寒涼한 藥을 쓰기 좋아한다고 비난하지만 내 어찌 溫補藥을 쓰지 않겠는가 단지 가히 쓸만한 證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sup>44)</sup>라 하였다.

35) 張子和, 儒門事親 卷二, 臺北, 旋風出版社, p. 10.

36) 北京中醫學院, 中醫各家學說講義, p. 90.

37) 張子和, 儒門事親 卷一, p. 35.

38) 上揭書 卷一, p. 35.

39) 上揭書 卷一, p. 36.

40) 張子和, 儒門事親 卷三, p. 4.

41) 張子和, 儒門事親 卷二, p. 28.

42) 張子和, 儒門事親 卷二, p. 29.

43) 上揭書 卷二, p. 42.

44) 上揭書 卷二, p. 42.

이와 같이 그는 邪祛則正安 (혹은 扶正足以驅邪)이라는 治療原則을 고수하고 《推原補法利害非經說》에서 “養生當論食補 治療當論藥攻”(養生에는 마땅히 飲食으로 補함을 論해야하고 治療는 마땅히 藥으로 치는 것을 論해야한다.)<sup>45)</sup>이라 하여 治療에 있어서의 거의 補法을 使用치 않고 다만 飲食에 의한 食補를 強調하였다.<sup>46)</sup>

### 3) 李杲의 學說

李杲는 元氣가 人身의 根本이라 하여 “眞氣又名元氣爲先身生之精氣 非胃氣不能滋胃氣者 穀氣也 榮氣也 運氣也 衛氣也 陽氣也 又天氣人氣地氣爲三焦之氣 分而言之則異 其實一也.”(眞氣는 또한 元氣라 이름하니 몸에 먼저하여 生하는 精氣이다. 胃氣가 아니면 능히 滋養할 수 없으니 胃氣는 穀氣이고 營氣이고 運氣이고 衛氣이고 陽氣이다. 또 天氣 人氣 地氣로 三焦의 氣이니 나누어 말한즉 다르나 實은 하나이다.)<sup>47)</sup>라 하였다. 이러한 元氣는 脾胃에 의하여 生成되니 “眞氣又名元氣爲先身生之精氣非胃氣不能滋之”(眞氣는 또한 元氣라 이름하니 몸에 먼저하여 生하는 精氣이다 胃氣가 아니면 能히 滋養할 수 없다.)<sup>48)</sup>라 하였고 “元氣之充足 皆由脾胃之氣生 無所傷而後 能滋養元氣”(元氣의 充足은 모두 脾胃의 氣로 말미암아 生하니 傷한 바 없어야 能히 元氣를 滋養할 수 있다.)<sup>49)</sup>라 하였으며 “人以胃氣爲本 蓋人受水穀之氣以生”(사람은 胃氣로써 根本을 삼으니 사람이 水穀의 氣로써 胃氣를 生한다.)<sup>50)</sup>이라 元氣의 根本인 脾胃를 人體에서 가장 重要하게 생각하였다. 이와같이 人體 生命 活動의 源泉인 氣가 脾胃에서 生成되는 까닭에 脾胃는 元氣의 本이요 또한 生命의 根本이라 하였다.

그리고 그는 時時刻刻 運動變化하고 있는 自然界의 모든 現象을 升降浮沈의 變化라고 보고 이것이 바로 天地陰陽生殺의 理致라 하였다. 예를 들어 一年中 春夏때에는 地機가 升浮하고 陽生陰長하여 萬物이 萌芽하며 枝葉이 무성하게 되고 秋冬때가 되면 天氣가 沈降하고 陽殺陰長하며 萬物의 枝葉이 시들고 떨어져 生氣가 潛藏한다. 그러므로 經에 말하길 “歲半已前天氣主之 在乎升浮也 歲半已後 地氣主之 在乎降沈也 升已而降 降已而升...如環無端 運化萬物 其實一氣也.”(한 해의 前半年은 天氣가 다스리고 升浮에 있으며 後半年은 地氣가 다스리고 降沈에 있다. 升이 마침에 降하고 降이 마침에 升하여 고리와 같이 실마리가 없음이 萬物을 運化하지만 그 實은 하나이다.)<sup>51)</sup> 하였다. 그리고 人體에서는 脾胃가 升降運動의 中추적인 역할을 하니 “蓋胃爲水穀之海 飲食入胃精氣先輸脾歸肺 上行春夏之令 以滋養周身 乃精氣爲天者也 升已而下輸膀胱 下行秋冬之令 爲轉化糟粕轉味而出 乃濁陰爲地者也.”(대개 胃는 水穀의 바다로 飲食이 胃에 들어가 먼저 脾로 運輸하여 肺로 가고 春夏의 作用을 위로 행하여 온몸을 滋養하니 이에 精氣는 天이 된다. 升함이 마침에 膀胱으로 下輸하여 秋冬의 作用을 행하여 糟粕으로 轉化하고 味로 轉化하여 이에 濁陰이 地가 된다.)<sup>52)</sup>라 하였다. 그는 升降運動中 특별히 生長과 升發의 面을 強調하였으며 穀氣가 上升하고 脾氣가 升發하여야만 元氣가 비로소 充足하여지고 生氣가 能히 旺盛하게 활동하며 陰火가 熾斂潛降된

45) 上揭書 卷二, p. 26.

46) 宋哲鎬 洪元植 金光湖, 金元四大家에 관한 研究, 慶熙韓醫大論文集, Vol 9, 1986, p. 60.

47) 李東垣 外 5人, 東垣十種醫書, p. 105.

48) 上揭書, p. 105.

49) 上揭書, p. 67.

50) 上揭書, p. 35.

5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所, 1981, p. 156.

52) 李東垣 外 5人, 東垣十種醫書, p. 109.

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그는脾胃가 元氣의 원천이며 升降作用의 中樞役割을 한다고 하여脾胃의 機能을 특히 重視하였다.

李梴은 生命의 根本이 되는 元氣의 부족이 疾病 發生의 가장 중요한 原因이 되고 아울러脾胃의 升降失調도 疾病의 중요한 要因이 된다 하였다.

그는 元氣가 부족하게 되는 요인으로 첫째,脾胃가 虛弱하여 元氣를 生成하지 못할 때와 둘째, 陰火가 發生하여 元氣를 消耗시키는 (壯火食氣)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하였다.

생명의 근본인 元氣는 胃氣에 의하여 生成되므로脾胃가 虛弱하여 元氣가 充足하지 못하면 모든 疾病이 생긴다하여 “脾胃之氣既傷而元氣亦不能充而諸病之所由生也.”(脾胃의 氣가 損傷되면 元氣가 또한 능히 充足되지 못하니 諸病이 말미암아 生하는 바다.)<sup>53)</sup>라 하였다. 그리고 元氣와 陰火는 서로 相互制約하는 關係가 있어 元氣가 不足하면 陰火가 旺盛하여 得勢하며 반대로 元氣가 充滿하면 陰火가 自然히 下降하니 “火與 元氣勢不兩立故曰 壯火食氣 氣食少火 少火生氣”(火와 元氣는 兩立하지 못하니 故로 말하기를 壯火는 氣를 먹고 氣는 少火를 먹으므로 少火는 氣를 生한다.)<sup>54)</sup>라 하여 陰火가 熾盛할수록 元氣가 더욱 消耗된다 하였다. 그러므로 陰火는 元氣의 賊이라 하여 “元氣不足而心火獨盛 心火者陰火也 起於下焦其系繫於心 心不主令 相火代之 相火下焦包絡之火 元氣之賊也 火與元氣不兩立 一勝則一負”(元氣가 不足하면 心火가 獨盛하니 心火는 陰火다. 下焦에서 일어나 心에 連系하니 心이 令을 遂行하지 못하면 相火가 대신한다. 相火는 下焦包絡의 火로 元氣의 賊이다. 火와 元氣는 兩立하지 못하여 하나가 이긴즉 하나는 진다.)<sup>55)</sup>라 하였다. 그리고 陰火는脾胃가 虛弱하여 지거나 飮食不節 七情勞役過度 등으로 因하여 元氣가 虛弱하여지면 發生한다하여 “脾胃氣虛卽下流於腎 陰火得以乘其土位”(脾胃의 氣가 虛한즉 아래로 腎으로 흐르고 陰火가 그 土位를 대신한다.)<sup>56)</sup>라 하였고 “夫飮食失節 寒溫不適則脾胃乃傷 此因喜怒憂思恐 損耗元氣 資助心火 與元氣不兩立 火勝則乘其土位 此所以病也.”(무릇 飮食을 失節하고 寒溫이 適當하지 않으면脾胃가 이에 損傷되니 이는 喜怒憂思恐으로 인하여 元氣를 消耗하고 心火를 부추긴 것이다. 火와 元氣는 兩立할 수 없으니 火가 이긴즉 그 土位를 乘하니 이 것이 病이 된 바다.)<sup>57)</sup>라 하였다.

그리고 自然과 人體의 運動變化의 原理가 升降浮沈에 있고 人體에서의脾胃가 升降運動의 中樞的役割을 擔當하므로脾胃의 升降作用이 失調되면 病理現象이 나타나니 “或下泄而久不能升是有秋冬而無春夏乃生長之用 陷於殞殺之氣而 百病皆起 或久升而不降 亦病焉”(或은 下泄하여 오랫동안 오르지 못하니 이는 秋冬은 있으되 春夏가 없는 것이라 生長의 作用이 殞殺한 氣에 陷下하여 百病이 모두 일어나는 것이다. 或 오랫동안 升하여 내리지 못한 것도 또한 病이다.)<sup>58)</sup>이라 하여 內傷病이 주로脾胃가 虛弱하여 發生하지만 升降이 失常하게 되어도 역시 疾病이 發生한다 하였다.

#### 4) 朱震亨의 醫學思想

四大家의 마지막 사람으로 劉, 張, 李 三家의 說을 독파하였으며 그의 스승인 羅知

53) 李東垣 外 5人, 東垣十種醫書, p. 67.

54) 上揭書, p. 169.

55) 上揭書, p. 35.

56) 李東垣 外 5人, 東垣十種醫書, p. 86.

57) 上揭書, p. 86.

58) 上揭書, p. 109.

梯가 劉完素의 弟子인 荊山浮屠에게 직접 師承한 까닭에 劉完素의 影響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그가 거처한 東南地方은 風土가 濕하고 주민들의 體質이 柔弱하였으며<sup>59)</sup> 羅知梯는 當時의 풍조가 사치스럽고 식생활이 풍족하여 濕熱痰火로 因한 疾病이 많았으므로 그에게 淸金降火之法을 傳授시켰다.<sup>60)</sup> 이러한 영향을 받아 그는 陽有餘陰不足論과 相火論을 主張하였다.

### (1) 陽有餘陰不足論

朱震亨은 《格致餘論, 陽有餘陰不足論》에서 “人受天地之氣以生 天之陽氣爲氣 地之陰氣爲血 故氣常有餘, 血常不足 何以言之 天地爲萬物之父母 天也爲陽而運於地之外 地居天之中爲陰 天之太氣舉之 日寔也 亦屬陽而運於月之外 月缺也屬陰 稟日之光以爲明者也.”(사람은 天地의 氣를 받음으로써 사니 天의 陽氣는 氣가 되고 地의 陰氣는 血이 된다. 故로 氣는 恒常 남음이 있고 血은 恒常 不足하다고 하니 무엇으로써 말하는가? 天地는 萬物의 父母가 되어 天은 陽으로 地의 밖에서 運行하고 地는 天의 가운데에 자리잡아 陰이 되어 天의 太氣가 받들고 있다. 日은 實한 것으로 또한 陽에 屬하여 日의 밖에서 運行하고 月은 缺한 것으로 日의 빛을 받아 밝은 것이다.)<sup>61)</sup>라 하여 天地 日月을 비교, 陽이 有餘하고 陰이 不足하다 하였다. 또한 人體에 있어서도 먼저 形體가 있는 후에 乳哺水穀으로 陰氣를 滋養하기 시작하여 40세에는 陰氣가 自半하고 男子는 60세에 女子는 40세에 精氣가 絶하니 이와같이 陰氣는 難成易虧라 하였다.<sup>62)63)</sup>

陽有餘, 陰不足論을 主張하게 된 理論的 根據를 간략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天은 陽이며 地는 陰으로 天大地小하고 日은 陽이요 月을 陰으로 日常圓 月常缺하며

나. 人身의 陰精이 難成易虧하고

다. 《內經》原文에 “陽道實 陰道虛” 又曰 “至陰虛 天氣絶 至陽盛 地氣不足”이라 하였으니 陰陽虛實의 위치나 문구가 그러하고

라. 人身의 相火는 易動하여 이것이 妄動한 즉 陰精을 瀉하게 하므로 陽常有餘하고 陰常不足하다 하였다.

### (2) 相火論

朱震亨은 劉完素의 主火論과 李杲의 陰火論에 影響을 받아 火의 作用을 強調하여 “火之爲病 其害甚多 其變甚速 其勢甚彰 其死甚暴”(火의 病되는 것은 그 害가 甚히 많고 그 變이 甚히 빠르고 그 勢가 甚히 드러나며 그 죽음이 甚히 빠르다.)<sup>64)</sup>

그는 《格致餘論·相火論》에서 모든 動氣를 火라 하여 “太極動而生陽 靜而生陰 陽動而變 陰靜而合 而生水火木金土 各一其性 唯火者 有二 曰君火 人火也 曰相火 天火也 火內陰而外陽 主乎動者也 凡動皆屬火也.”(太極이 動하여 陽을 生하고 靜하여 陰을 生하니 陽은 動하여 變하고 陰은 靜하여 合하여 木 火 土 金 水를 生하는데 각기 그 性을 한개만 가지지만 오직 火만이 둘을 두니 曰 君火니 人火이고 曰 相火니 天火이다. 火는 안이 陰이고 밖이 陽이니 動을 主로 하므로 무릇 모든 動은 火에 屬한다.)<sup>65)</sup>이라 하였다. 火에는 君火와 相火가 있으며 君火를 人火, 相火를 天火라 하였고, 相火는 肝

59) 劉伯驥, 中國醫學史, p. 389.

60) 上揭書, p. 372.

61) 朱震亨, 格致餘論, p. 472.

62) 王肯堂, 醫統正脈全書, p. 9308.

63) 朱震亨, 格致餘論, p. 472.

64) 朱震亨, 格致餘論, p. 472.

65) 朱震亨, 上揭書, p. 502.

腎에寄하고 있고 膀胱, 三焦, 心包, 膽에도 相火가 있다.<sup>66)</sup> 그리고 相火는 모든 活動力의 根源으로 自然의 運動과 人體의 生命力이 모두 相火에 의해 作用한다하여 “天非此火 不能生物 人非此火 不能有生”(天은 이 火가 아니면 能히 物을 살게하지 못하고 人이 이 火가 아니면 能히 生命을 두지 못한다.)<sup>67)</sup>이라 하였다. 그는 모든 動氣를 火라 하였고 火에는 君火와 相火가 있어 君火를 人火, 相火를 天火라 하였다. 이러한 火는 虛無에서 生하고 그 作用이 發할 때 나타나며 相火는 自然과 生命活動의 根本으로 人體의 肝 腎에 寄하여 있고 膽, 膀胱, 心包, 三焦에도 分속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相火가 五性에 感하여 妄動케되면 眞陰을 損하여 賊邪가 되므로 道心이 一身之主가 되어 五火之動이 皆中節하면 相火는 정상적인 生理活動을 영위할 수 있다 하였다.<sup>68)</sup>

이상 四大家說의 공통점은 火의 作用을 특히 強調하였는데 劉完素와 張從正은 단순히 病邪인 實火로 李杲는 虛火라 內傷火로 보았고 朱震亨은 火의 生理, 病理的인 兩面을 모두 강조하였듯이 그들 이론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火에 대한 이론이 四大家를 거치면서 더욱 완전하게 發展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69)</sup>

### III. 考察

東醫壽世保元 醫源論에 있듯이 四象體質醫學은 《內經》을 비롯하여 張仲景 以後의 歷代 醫家의 醫學理論과 思想을 母胎로 하여 成立된 것이다.

李濟馬는 諸家의 醫論을 두루 涉獵한 뒤 獨創的인 四象體質醫學 原理를 創始하고 이를 基準으로 하여 既存 理論의 虛實을 지적하여 東洋醫學上 學問的 大變革을 가져왔다.

金元四大家를 일일이 論據하지는 않았으나 ‘宋, 元, 明 諸醫’와 ‘朱震亨’이 자주 引用되고 있고 이들에 의해 太陰人, 少陽人, 少陰人, 太陽人의 體質病理과 藥理가 全般的 혹은 部分的으로 發明되었음을 論하였다.

金元四大家의 共通點은 《內經》과 《傷寒論》에 대한 研究를 學問的 始原으로 하고 있고 學說에 대한 獨創성과 論理의 明瞭性이 卓越하여 그 以後에 學界에 가장 큰 影響을 미쳤다.<sup>70)</sup>

金元四大家의 醫學思想은 火熱病理의 發見인데 劉完素와 張從正은 外邪인 實火로 보았고 李杲는 虛火와 內傷火로 보았으며 朱震亨은 火의 生理, 病理的인 面을 모두 強調 하였다.<sup>71)</sup> 이것은 火熱病理가 劉完素와 張從正에 의해 外邪의 概念으로 파악되었던 것이 李杲, 朱震亨에 이르러 內火로 認識되는 發展的 段階로 보아야 할 것이다.

四象醫學에서 體質病理는 寒熱病理임이 《東醫壽世保元》에 밝혀져 있는데 寒熱病理는 火熱概念이 주체가 되어 成立된 것으로 熱의 相對的 因子인 寒病理를 병행시킨 것이다.

66) 上揭書, p. 502.

67) 朱震亨, 格致餘論, p. 502.

68) 宋哲鎬 洪元植 金光湖, 金元四大家에 관한 研究, 慶熙韓醫大論文集 Vol. 9, 1986, pp. 64-66.

69) 上揭書, p. 81.

70) 宋哲鎬 洪元植 金光湖, 金元四大家에 관한 研究, 慶熙韓醫大論文集 Vol. 9, 1986, p. 53

71) 宋哲鎬 洪元植 金光湖, 金元四大家에 관한 研究, 慶熙韓醫大論文集 Vol. 9, 1986, p. 81.

寒熱中에서 東武는 특히 火熱을 강조하였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性情이 欲火를 發動시켜 病을 發한다는 心身一元醫學의 原理에 두고 있다.

太陰人 肝受熱 裏熱病論에서 “이 病의 原因은 奢侈와 享樂으로 欲火가 밖으로 달려서 肝熱이 크게 盛하고 肺가 燥하여 크게 이를 말려 버린 까닭이다.”<sup>72)</sup>라고 太陰人 青年의 燥熱病을 論하였다.

또한 少陽人 脾受寒 表寒病論에서 “少陽人 少年이 항상 滯症으로 속이 답답하고 배가 아프며 허리도 아프다가 나중에는 가벼운 口眼喎斜 初症이 생겼는데, 百日 동안에 獨活地黃湯 200여첩을 썼고, 한편으로는 마음을 편히 가지며 衰心과 怒心を 경계하니 百日만에 병이 완쾌되었다.”<sup>73)</sup>는 治驗例을 들어가며 비록 少年의 滯症痞滿을 치료함에 있어서도 衰心과 怒心등의 心火가 重要함을 강조하고 있다.

四大家 中에서 東垣은 元氣가 不足한 요인으로 脾胃가 허약하여 元氣를 生成하지 못할 때와 陰火가 발생하여 元氣를 消耗시키는 두 가지의 경우를 지적하였다. 元氣와 陰火는 서로 相互 制約하는 관계를 이루고 있어 元氣가 不足하면 陰火가 旺盛하여 得勢하며, 반대로 元氣가 充足하면 陰火가 自然히 下降하는, 이른바 火와 元氣가 兩立하지 못하여 壯火는 氣를 食하고 少火는 氣를 生하는 內經의 原理를 설명하고 있다.

東垣의 陰火는 心火로서 元氣가 不足하면 心火가 獨盛한다 하였다.

東武는 그의 理論을 충실히 받아들여 《東醫壽世保元·少陽人胃受熱表熱病論》에서 “마음을 편하게 갖고 생각을 고요하게 하면 陽氣가 맑고 가볍게 위로 올라가서 머리, 얼굴 및 四肢에 充足할 것이니, 이것이 곧 元氣요 맑은 陽氣이다. 勞心焦思를 하면 陽氣가 아래로 떨어져서 重濁하여지면 머리, 얼굴 및 四肢에 鬱熱이 되어 이것이 곧 火氣요, 陽氣가 耗損되는 것이다.”<sup>74)</sup>라 하였다.

또한 그는 喜怒哀樂의 性情의 變化가 疾病의 發生이 많지 않은 小兒期나 青年期の 發病時에도 主要한 原因으로 作用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廣濟說에서 “幼年期 7, 8 세 전에 間見이 未及하여 喜怒哀樂이 膠着하게 되면 病이 나는 것이니 慈母는 마땅히 그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少年期 24, 5 세 전에는 愚瞞이 未及하여 喜怒哀樂이 膠着하게 되면 病이 나는 것이니 智慧로운 아비나 有能한兄이 마땅히 그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sup>75)</sup> 고 하여 最近의 現代醫學에 와서 立證된 스트레스 病因과 心因性 病理論을 일찌기 주장하였다.

金元四大家의 이론은 清末에 消滅하는데 그 理由에 대해 西洋醫學의 導入과, 당시 流行한 實學의 影響으로 崇古派가 생겨나고 기본적인 理致研究에 치중하는 그들의 理論이 實學의 實事求是의 정신에 적합하지 않았다는데 있었다고 한다.

韓國에서도 ‘四大家의 理論이 처음 소개된 것은 고려말 경으로 추측되며 《東醫寶鑑》에서는 病症別로 이들 四大家의 이론과 治法을 상세하게 인용하였고, 朝鮮末 李圭峻이 朱震亨의 이론을 批判하는데 그치고 그들의 理論이 系統的으로 계승, 발전되지는 아니하였다’<sup>76)</sup>고 최근의 宋 등의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도 金元四大家의 이론을 皮相의으로 집한 것으로 지극히 觀念的인 觀察이다. 四大家 理論의 核心思想이나 學問的 根據가 實際 人體에 生命活動으로 發顯되는 生理現狀을 直視하고 이에 따라 나타나는 病理的 症狀을 原理論的으로 把握하고 있다면 그 들의 理

72) 洪淳用 李乙浩, 四象醫學原論, p. 334.

73) 洪淳用 李乙浩, 四象醫學原論, p. 259.

74) 洪淳用 李乙浩, 四象醫學原論, p. 278.

75) 上揭書 p. 116.

76) 宋哲鎬, 金元四大家에 關한 研究, p. 41.

論과 學說이 결코 消滅된 것이 아니다.

그들이 발견한 醫學原理는 그대로 四象醫學에 살아 숨쉬고 있음이 《東醫壽世保元》의 여러 部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四象醫學이 外面的으로는 기존의 辨證論治나 세칭 後世方과 전혀 다른 學問的 構造를 이루고 있는 듯이 보이나 人體의 基本 生理와 病理 그리고 藥理와 方劑에 있어 既存醫學을 바탕으로 한 學問的 一大 革命인 것이다.

金元四大家의 理論이 四象醫學의 臟腑寒熱病理로 구체화 된 것은 時空을 넘어선 學問的 繼承이며 昇華인 것이다. 그러므로 四象醫學에 대한 研究는 《內經》 以來의 醫學 全般에 걸쳐 보다 廣範圍하게 論議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思料된다.

#### IV. 結 論

以上과 같은 研究에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金元四大家의 始發이 宋末의 《和劑局方》의 燥熱溫補劑의 濫用에 대한 時代的 自覺에 의한 점과 四象體質醫學의 出現이 조선말 流行된 溫補氣血劑의 偏重에 대한 學問的 覺醒이었던 것은 醫史學的 脈絡을 같이 한다.

2. 四大家의 火熱病 이론은 四象體質醫學에 의해 臟腑의 寒熱病理로 定着되었다.

3. 四大家에 의해 最終的으로 귀착된 '內火'의 病理概念은 四象體質醫學에 와서 四象人의 性情과 臟局의 形成 등으로 學問的 結實을 맺게 되었다.

4. 《東醫壽世保元》에 대한 研究가 기존의 醫學理論과 連繫性을 가지고 分析檢討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 參 考 文 獻

1. 蔡陸仙：中國醫藥匯海，成輔社，서울，1978.
2. 劉伯驥：中國醫學史 下冊，華岡出版社，臺北，1974.
3. 洪淳用,李乙浩：四象醫學原論，杏林出版，서울，1985.
4. 吳勉學校：劉河間三六書，서울，成輔社，1976.
5. 北京中醫學院：中國各家學說講義，醫藥衛生出版社，1978.
6. 張子和：儒門事親，臺北，旋風出版社，中華民國六十七年.
7. 李東垣外 5人：東垣十種醫書，서울，大星文化社，1983.
8. 洪元植：精校黃帝內經，서울，東洋醫學研究所，1981.
9. 宋哲鎬,洪元植,金光湖：金元四大家에 關한 研究，慶熙韓醫大論文集 Vol.9, 1986.
10. 朱震亨：格致餘論，서울，大星文化社，1983.